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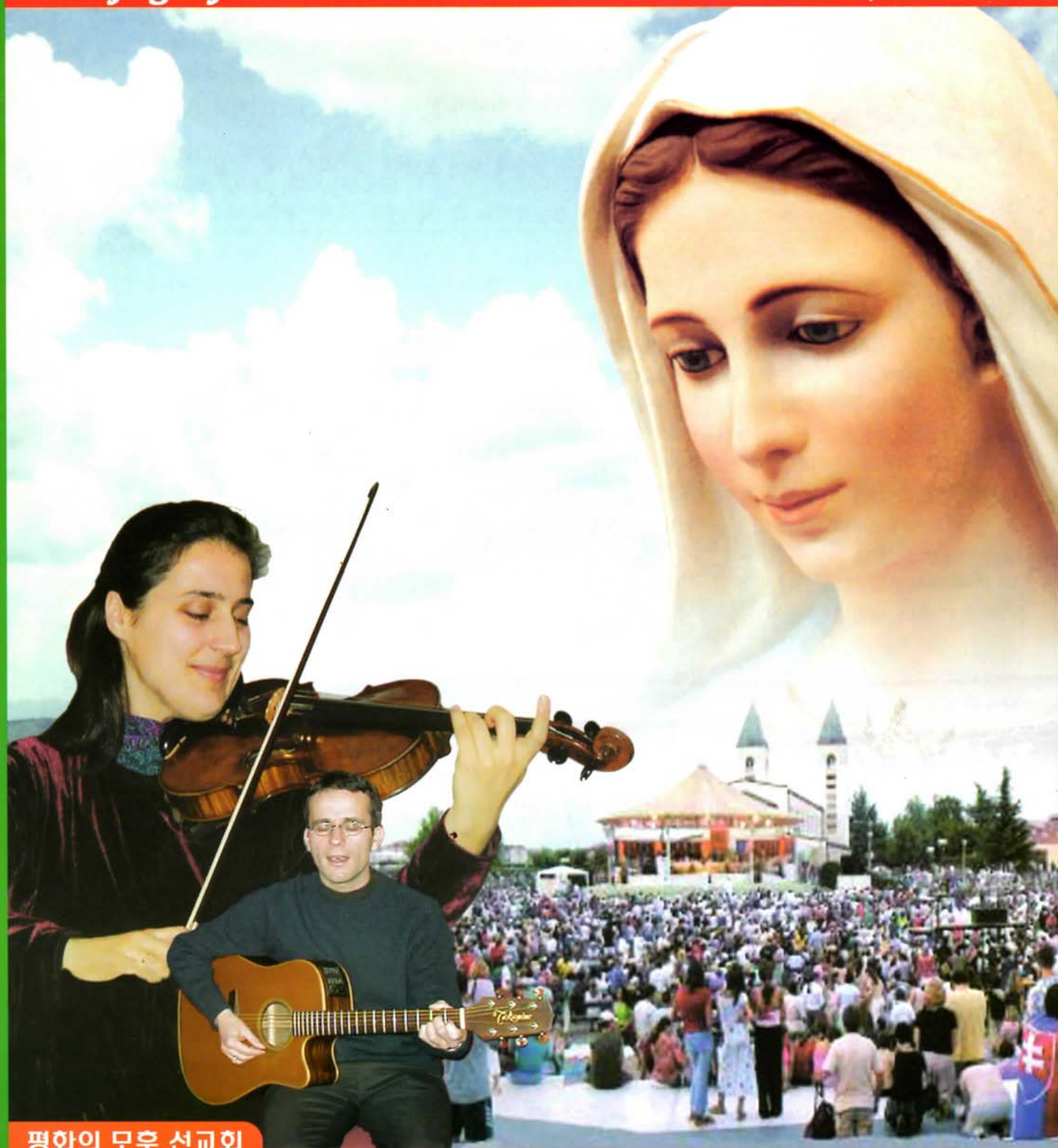


# 메주고리에



Medjugorje

DECEMBER, 2004 제 24호



평화의 모후 선교회



##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지금 이시간, 나는 너희 모두를 내 지향에 따라 기도하라고 부른다. 나의 작은 자녀들아, 아직도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과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찾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여라. 내 작은 자녀들인 너희들은 나의 펼쳐진 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의 모범을 통하여 그들을 내 성심과 나의 아들 성심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야 한다. 하느님께서 너희들 모두에게 많은 은총과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 고맙다. 2004년 11월 25일

## 제6회 세계 사제 모임

교황은 21일 교황청에서 위성 영상을 통해, 교황청 성직자성 주최로 몰타에서 열린 제6회 국제사제모임에 참석한 280개 교구 900여명 주교와 사제들에게 폭력에 짓밟히고 절망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사제들은 용기와 거룩함을 지니고, 평화·희망·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모임은 18일부터 23일까지 '새 천년기에 성인과 같은 사제들, 사도 바오로의 자취를 따라서'를 주제로 열렸다. 교황은 "교회는 거룩한 사제, 다시 말해 새로운 천년기를 위해 성인과 같은 사제를 필요로 한다"고 전제하고, "폭력과 분쟁으로 분열된 세계에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참되고 굳센 믿음을 주신다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고 사제들에게 당부했다. 교황은 사제들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수록 그들 삶에서 하느님 자비를 더 많이 체험하고 또 하느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더욱더 믿음만한 증거자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황은 성모 마리아가 주님께 항상 "네" 하고 대답했던 것처럼 사제들도 그들 삶에 대한 하느님 계획에 대해 매일 "네"하고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교회의 사제성소를 위한 기도의 날 제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 미국교회의 성소 격감 현상과 관련해 미국 교회가 「사제성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교황은 11월 26일 미국 캔사스시티 등 주교단의 교황청 정기방문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최근 미국에서 성소의 급감 문제가 미국 교회의 큰 도전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이러한 도전에 직면해 모든 교회가 사제성소 계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은 특히 신학교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아울러 성직자들이 지속적인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미국 교회는 지난 1985년 3만 4886명의 교구 사제가 있었으나 2001년 3만1197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회 사제의 수 역시 2만1771명에서 1만7135명으로 감소했다.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지향과 어머니 마을을 위하여...
- 성체의 해를 선포하신 교황님의 지향을 위하여
- 교회와 사제,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봉사자들과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 홍지유 로사와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예수님과 성모님께 쟈마 할머니의 건강을 봉헌합니다.
- 성모님, 엘리자벳이 성 가정안에서 살도록 꼭도와주세요.
- 켈거리 공동체를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장애아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봉헌합니다.
- 마음의 교만을 없애고 겸손되이 당신을 따르게 해주세요.
- 조모니카의 가정에 주신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님,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미카엘, 마이클이 하고 있는 일들을 축복해주세요.
-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언니와 동생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 Muzzanghee와 함께 하는 모든분들을 봉헌합니다.
- 토니와 가족들이 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 성모님, Robert을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교회로 이끌어주세요.
- 주님, 에제키엘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당신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 예수님과 성모님께 모든것을 맡기고 살수 있는 지혜를 청합니다.
- 암으로 투병중인 가족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 돌아가신 부모님과 친척들의 영혼을 위하여 ...
- 냉담하고 있는 남편과 도박을 하는 이들의 악습을 고쳐주세요.
- 무거운 마음과 짐을 예수님께 봉헌합니다.
- 가정의 성화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화해를 위하여...
- 하느님을 믿지않는 모든 이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 낙태로 태어나지 못한 영혼들과 그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면상 이곳에 기재되지 못한 기도 지향들도

매주고리에 순례때에 미사를 봉헌 했으며 발현 목격자 비스카를 통하여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 “내 아들이, 이곳에 못 오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찾아 간다.”

남 그레고리오 (평화의모후 선교회 회장)

- 우리 교구에 있는 한 사제의 체험담입니다. 그는 메주고리에 와서 자신의 영혼이 기쁨과 평화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성모님, 저는 당신이 이곳에서 발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메시지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직접 찾아 간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필리핀의 알라미노스 교구의 Cabrea주교님의 말씀) -

이 글을 읽으면서 큰 공감을 갖게 되었고 메주고리에 본당의 음악봉사자들과 함께 성모님을 모시고 이 세상을 향한 순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멜린다들과 함께 하는 '치유의 음악기도회'를 구상하면서 신청이 들어온 본당 중에 1~2시간 거리에서 올 수 있는 곳은 한 곳만 선정하고 좀더 여유 있는 일정을 계획했었으나 성모님의 뜻은 우리와 다르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 성모님이 쓰신 왕관에 있는 12개의 별처럼 12군데의 공동체가 정해졌으니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5일 동안 12군데의 순례!” 이 건 정말 성모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매우 힘든 일정이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나라!” 하는 격려와 강한 힘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모든 일정을 성모님께 의탁하였고 또한 언제나 손에 묵주를 쥐고 앉으나 서나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일행들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하여 의인들을 찾는 아브라함과 하느님의 대화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1명으로 시작하여 2명의 체나콜로 형제들을 포함한 13명의 일행들이 도착하는 곳마다 마치 가족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맞이하여

주시는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본당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이 정성스럽게 해주신 배려와 고마우신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도착하여 잠시 쉬고 4~5시간의 행사일정을 마치면 새벽 1시가 넘어 서야 잠을 잡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또 비행기를 타는 바쁘고 고단한 일정이었지만 일행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반갑게 맞아 주시는 봉사자님들의 열성과 친절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기도 하였습니다. 15일 동안의 일정은 하루하루가 예수님과 성모님을 모시고 각 본당의 교우 분들과 봉사자님들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어울린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특히 메주고리에의 음악과 함께 드렸던 미사와 성시간은 신 경남 신부님이 온 정성으로 봉헌해주시는 성체성사의 은총이 넘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바쁘고 짧은 일정이지만 하였지만 그동안 서로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성모님과 함께 지낸 잊을 수 없는 은총의 시간들을 못내 아쉬워하며 헤어지기 서운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선교회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꾸준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번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교우분들과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후원회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 드리겠습니다. M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기도회 재정보고 (2004년 11월 8일 - 22일)

###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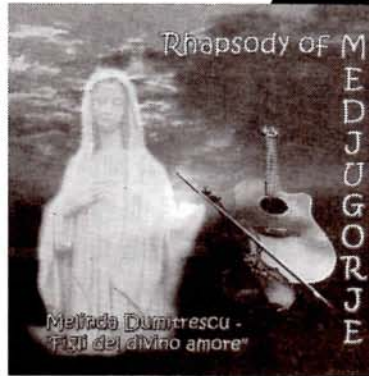
지 역	현금 (봉헌,예물)	CD판매금
Detroit 한인 천주교회	\$4,220	\$2,470
Tacoma 한인 천주교회	\$3,322	\$1,380
Portland 한인 천주교회	\$1,957	\$3,070
San Jose 한인 천주교회	\$2,116	\$2,830
Oakland 한인 천주교회	\$4,245	\$2,895
St. Basil 성당	\$3,986	\$3,950
St. Thomas 한인 천주교회	\$6,427	\$4,390
Denver 한인 천주교회	\$2,379	\$2,855
Atlanta 한인 천주교회	\$3,969	\$2,685
Washington DC 승리의모후	\$5,028	\$5,730
Orange, NJ 한인 천주교회	\$4,390	\$5,090
Philadelphia 한인 천주교회	\$2,556	\$2,535
Total	\$44,595	\$39,880
Grand Total		\$84,475

### 지출

지출내역	금 액
CD 및 책자 제작비	\$22,000
국제운송료	\$17,000
국내운송료 (UPS etc.)	\$3,541.49
국제 항공권	\$6,186
국내 항공, 교통비	\$19,057.63
강사 및 출연감사비 지출	\$8,100
성당 사용료 (성바실)	\$100
숙박 및 식사비	\$2,087.34
장비, 필름 테이프	\$1,280
배너 및 포스터	\$3,413
통신료, 우편	\$1,100
광고비	\$1,700
메주고리에 고아원, 멜린다 수도원	\$4,000
Total	\$89,565.46

▶ 수 입 \$84,475.00  
▶ 지 출 \$89,565.46  
▶ 부족금 \$5,090.46

상기 부족금은 신경남 신부님께서 익명의  
자매님으로부터 받으신 기부금으로 충당  
하였습니다.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 온  
사람들은 성 야고보 본당에  
서 드리는 거룩한 묵주기도,  
미사, 성시간에 영혼을 깨워  
주던 메주고리에 음악을 잊  
지 못한다. 순례자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가슴 깊숙히 들어 오시  
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자신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속에서 치유의 은총을 받는다. 세속의 음악을  
연주하던 멜린다와 로렌드! 이들이 영혼을 울리는 음악을 연주하  
게 된것도 성체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 사랑의 자녀회” 수도공동  
체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 가는 자신들의 기쁨과 체험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전해지기 때문이다.

-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매달 메시지와 야고보 본당의 음악 야고  
보 묵주기도, 미사, 성시간의 음악 CD (3set)와 성모님의 매달  
주시는 메시지가 TAPE 3set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 판매 수익금은 슬라브코 신부님의 고아원, 하느님 사랑의 자녀  
회와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  
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965-6168)

• 캐나다 지역 : 이 데레사

(403-288-0469)

• LA지역 : 성 바오로 서원

(714-638-3855)

평화의 모후 성물 센터 (323-730-1499)



# "바오로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나의 엄마.. 그 사랑스런 어머니가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오세완 신부 뉴저지 오렌지 성당

얼마 전 나에게는 오랜만에 성모 발현지들을 다시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 동안 나는 성모 신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안내자들의 설명에 여느 때보다 훨씬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내가 처음 찾은 곳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기적의 메달 성당이었다. 누구나 신자라면 하나씩 갖고 있는 기적의 패..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이 메달을 보았고 또 몸에 지니고 있었어도 그 메달 속에 숨겨진 의미는 잘 몰랐으나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확히 알게 되었다.

메달 앞면에 보면 성모님께서는 양팔을 벌리고 있고 그 손에서는 수많은 빛이 내리고 있는데 이것은 성모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을 뜻한다. 그리고 가장 자리에 써어 있는 글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여, 당신께 달아드는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이다. 메달 뒷면에는 십자가와 마리아의 첫 글자 M, 사랑의 상징인 예수성심과 성모성심, 그리고 가장 자리에는 사도들 위에 세워진 교회의 상징인 열 두 개의 별이 그려져 있다. 이 메달은 육화강생과 구속, 즉 구원의 신비를 상기시켜 주며, 또한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의 표지이기도 하다. 1830년 11월 27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 회 지원자인 카타리나에게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보여준 모습대로 메달을 만들어 지니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모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대한 신심이 고조되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께서 신덕 도리로 반포한 것은 에페소 공의회에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반포한 이후 처음 갖는 성모님께 대한 교회의 최고 공경 행위가 되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인간으로써 원죄의 물들음 없이 깨끗하게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 분이 하느님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갖게 될 신령한 그릇이라는 의미도 있거니와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하느님의 어머니요, 인류를 구속한 제 2의 하와로써 구약에 예언된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뜻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모님도 하늘에서 천상 모후로써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당당히 전구하고 돌보실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덕 도리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성모님께서서는 신덕 도리 반포 4년째 되는 1858년, 루르드에서 어린 소녀 벨라멧다에게 발현하시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당신의 신분을 알려주시고 동굴에 바닥에 샘을 파게 하시어 수많은 병자들이 그 물로 치유되고 있다.

이제 루르드 하면 불치의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낫는 곳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나오는 물은 세계 곳곳으로 순례자들의 손에 의해 전달되어 치유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루르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행렬을 하며 "아베 마리아"를 노래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기적 수에 침수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마치 거룩한 물로 죄의 때가 씻겨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후에 들은 이야기지만 침수 후 수건으로 몸을 안 닦는 이유는 그 물이 성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당에 가서 묵상을 하고 있으려니 한 무리의 이탈리아인들이 와서 묵주기도, 성모호칭기도를 바치기 시작했다. 아래층 제일 넓은 지하 성당을 꽉 채운 이들과 함께 기도를 바치고 맨 꼭대기 성당에 가 앉아 있으려니 또 한 무리의 순례단이 성당을 메우고 성체조배를 하기 시작했다. 옆 사람에게 물으니 크로아티아에서 왔다고 하는데 3분의 1은 수녀, 수사 그리고 신부였다. 참으로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이들에게서 느껴졌다.

그 다음 날 나는 일행과 함께 메주고리예로 향했다.



크로아티아의 스플리트 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메주고리에 갈 때에는 까마득한 절벽을 타고 가는 바람에 아찔한 기분이 마치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듯 했다. 20여 년 전, 로마에서 메주고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오늘 비로소 이 곳에 와서 야고보 성당 성모상 앞에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 내 마음에는 벌써 잔잔한 감동이 일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마을을 가로 지나며 큰 소리로 묵주기도를 바쳤다.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다녀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는 곳.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은 우리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신심이 고조되는 것 같아 보였다. 세상에서 처음 보는 날카로운 돌 산, 수많은 순례객들의 발에 깔고 닳여 반들반들해진 그 산 위로 올라가면서 고통의 신비를 묵상할 때 나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매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통을 나의 맨발을 통해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었다. 이 때 한 자매의 절절히 흐르는 눈물과 신음소리가 등 뒤로 들렸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을 나누게 하여 주신 성모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눈이 팔려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기도의 생활을 해온 저에게 뒤늦게나마 이렇게 주님의 고통을 나누어지며 주님과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요조 신부님께서 계신 본당으로 찾아가 치유예절을 받았다. 그 분의 모습, 그리고 말씀한 마디 한 마디로 인해 그 분은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룩한 분으로 느껴졌고 성서를 인용하시는 구절들이 참으로 내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 때 내게 주님께서 "바오로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순간 성모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

는지 알면 너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며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아니 나의 엄마. 그 사랑스런 어머니가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느껴졌다.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고 당신의 따뜻한 품안으로 나를 이끄시는 어머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당신의 발현이 있어도 미사가 있으면 먼저 그 곳에 가라 하시는 성모님의 마음은 오로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일이 항상 우선이요 중심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이었다.

나는 메주고리에 마을에 있는 동안 저녁이면 으레 묵주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미사와 치유예절 그리고 묵주기도로 끝나는 기도 시간에 참석하곤 했다. 그 곳에 온 많은 사람들과 비록 언어는 다르나 한 마음으로 묵주신공을 바칠 때면 나는 항상 목이 메었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 광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체를 분배할 때면 눈물이 나왔다. 이 열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부터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에 있어 아무 것도 새로운 것이 없는 이 마을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이다. 기도와 단식, 미사와 고해 성사 그리고 성서를 읽는 것은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그 동안 나는 그것들을 소홀히 해왔다. 주님의 고통을 체험하고 못하고는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나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그것을 실천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메주고리에 순례는 이렇게 내게 기도를 가르쳐 준 학교였다. 떠나오는 날 어느 신자가 내게 흰색 제의 한 벌과 성모님 그리고 성광을 높이 든 슬라브코 신부님의 상분을 선물했는데 지금 내 방에 걸어 놓고 바라보며 성모님의 아들로써 새로 태어나 거룩한 사제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해 본다.

아베, 아베, 아베 마리아! **M**

## 사제들에게 전하는 성체의 메시지 (Messaggi eucaristici per i sacerdoti)

윤 종식 디모데오 신부  
(의정부 교구)



1993년 6월 30일

지극히 거룩한 내 성심과 소중한 내 피에 그대들의 영혼을 담그십시오. 오직 나에 대해 살기 위해서 생명의 내 영으로 그대들을 채우십시오. 내 생명과 사랑으로 채우기 위해 그리고 살아있으며 증거 된 내 말을 죽을 때까지 삶으로 선포하는 참된 선포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그대들을 성화시키려합니다.

그대들은 거룩한 성체의 완벽한 찬양가 들이 되십시오. 나는 그대들 모두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대들 모두는 거룩한 성체를 통해 나를 찬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불리움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성체에 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또한 성체 곁에 머무는 사람의 마음에서 겸손하고 조용히 활동하기 위해, 나는 그대들을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과 사랑의 힘을 그대들에게 줌으로써 그대들은 내 안에서 겸손하게 변화됩니다.

그대들은 나처럼 겸손하십시오. 비록 나를 보지 못하지만, 겸손과 사랑을 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단순한 성체의 형상 아래 숨어있는 나를 믿으십시오. 큰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을 잊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자! 그대들이 당하는 부정들과 능욕들, 그리고 받는 모욕들을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먹도록 내어주는 작은 산 제물이 되도록 그대들은 준비하십시오. 나처럼 먹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내 안에서 변화되고, 형제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됩니다.

내 어머니에게 항상 마음의 겸손을 청하십시오. 그대들 곁에 내가 있고, 나를 '왕 중의 왕' 으로 찬양할 때 내 어머니를 그대들과 함께 찬양하도록 초대하십시오. 그분보다 더 그대들을 내 영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고 나를 사랑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겸손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은총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이며, 그대들 곁에 있을 모든 마음들을 회심시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대들에게서 내 빛과 내 사랑을 발견할 것이고, 사랑의 사도들 그리고 모든 마음의 형제들로 인정할 것입니다.

평화가 항상 그대들과 함께하기를 늘 기도, 미사 그리고 성체찬양을 지속하십시오. 난 그대들과 늘 함께 있고, 모든 축복과 함께 그대들을 강복합니다. 아멘.

1993년 7월 27일

그대들 사이에 내가 현존하도록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내 성체와 성혈 앞에서 계속하여 무릎 꿇고, 내 거룩한 이름을 매순간 찬미하고 감사하십시오.

난 그대들이 사랑의 내 잔치에 계속 참여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내 마음의 살아있는 부분,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존재하게끔 하기 위해 그대들에게 내 몸과 피를 줍니다. 내 몸과 피는 새로운 계약에 그대들의 마음을 기초 세우게 하고, 항상 아버지의 영 안에서 더 강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그대들은 항상 사랑스런 내 자녀들, 그리고 거룩한 성



체의 완벽한 찬양가들이 되십시오. 성체는 오직 매 순간 내 몸과 내 사랑의 참여자들인 그대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 그대들은 나의 살아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내 안에서 지금, 그리고 항상 영원한 사랑의 내 왕국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총체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그대들의 사랑을 구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성사 적이든, 영성적이든 그대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로 열렬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성체를 통하여 매순간 총체적으로 내 마음과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체의 찬양가들이 되고, 나의 한 부분, 살아있는 부분이 되십시오. 그대들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 모든 사랑이 솟아나올 것입니다.

그대들에게 있어서, 그대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나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도록 이

끄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을 나에게 데려오고, 내 성령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대들과 그대들에게 위임된 영혼을 깨닫게 하고 성화시키는 모든 은총을 그대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대들에게는 모든 영혼이 다른 어떤 보물보다 더 소중한 합니다 나는 영혼들을 구하고 그대들이 구원과 사랑의 내 계획의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그대들을 영원한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그대들은 늘 기도와 통회를 통해 끈기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나는 항상 그대들과 함께 있고, 그대들의 회생으로부터 은총의 끊임없는 강들이 흘러나오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축복하고, 보호하며 나와 단단히 결합시킵니다. 천 상 성부의 모든 보호가 그대들에게 함께하기를, 또한 그대들의 마음이 순수함과 성덕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M

Message of October 25, 2004

## 성모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가정을 위한 은총의 때이다. 그러므로 나는 더욱 새롭게 기도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정의 중심이 되시게 하여라. 기도 중에 거룩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라. 그러면 그들의 삶이 거룩함으로 가는 길에 격려되고 스승이 되어줄 것이다. 기도와 평화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가정이 사랑의 증거자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주어 고맙구나





### “성체성사는 빛이며 친교와 선교의 원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0월 17일 제48차 세계성체대회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두려움과 테러, 전쟁으로 갈라진 세계에서 인류는 성체성사의 신비 안에서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를 통해 우리는 성체성사의 신비에 대해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모든 문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찰하게 됩니다.

**빛의 신비여!** 죄로 인해 억압받고 고통 속에서 지친 우리 마음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새천년기의 시작, 폭력과 테러와 전쟁으로 침해받고 모멸 받은 평화를 갈구하는 인류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성체성사는 빛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빵을 나눌 때 주님을 알아보았듯이 우리 마음을 열어젖히고 당신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그분,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십니다. 이 잔치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재현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라는 부름을 듣습니다.

**생명의 신비여!** 그 무엇이 생명보다 더 위대하겠습니까. 인류의 생명에 대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생명을 존중할 것을 거부하고 굶주림과 저개발의 운명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무심하고, 과학은 힘센 자들의 이기심에 봉사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가난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의 도움을 청하는 호소에 마음을 닫아서는 안됩니다. 빵 만으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 있는 빵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을 잊어서도 안됩니다. 예수는 바로 그 빵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양식으로 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바로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과 나눔에 우리의 문을 여십시오.

**더 자주 성체조배를...** 앞으로 일년을 특별히 성체성사에 봉헌된 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는 매일, 특히 주일에 이 신비를 살아갑니다. 성체성사의 해에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더욱 열렬하게 이 신비를 살아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더 깊이 성찬례의 거행에 참여하고, 더 자주 열렬하게 성체조배를 하며, 형제들과 친교를 나누고 가난한 이들에 대해 봉사하십시오. 성체성사는 친교의 원천이며 그 표현입니다. 그것은 선교의 원칙이며 계획입니다.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 신비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확고해져서 빛과 생명이 될 것이고 복음화와 연대의 누룩이 될 것입니다.

**충만한 생명 주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Mane nobiscum, Domine) 당신께서는 우리를 빛의 그림자 속에 가두어진 채로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주시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과 가족들, 특히 병자들을 축복하소서. 사제와 수도자들, 모든 인류를 축복하소서. 성체 안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영생의 묘약」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생명을 맛보게 하소서. 그 생명은 우리를 이 지상에서 생명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벅찬 순례의 길을 걷도록 해줄 것입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아멘. **M**

### 암스테르담에서의 성체의 기적

암스테르담은 성모님께서 오시기 정확히 600년 전인 1345년 당시는 네덜란드의 작은 항구 도시였다. 이 작은 도시에서 성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때부터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수도로서 유명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도약하고 부강하게 되었다. 여러 문헌과 그리고 약간의 이본이 있는 옛 연대기 기사들에 적혀 있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우트레트(Utrechter) 교구에 속했던 암스테르담에서 어떤 사제가 종부성사의 부름을 받고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도마라고 하는 남자를 방문하러 칼버 거리로 갔다. 고해성사를 마친 후 임종을 앞둔 그 남자는 성체를 영했지만 바로 토해내었다. 그를 간호하던 여인이 구토물을 쓸어 담아 토해낸 성체와 함께 화로에 집어넣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불을 다시 지폈을 때, 그 성체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채 불길 위를 떠도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란 그 여인은 불에 데지 않고 맨 손으로 그 하얀 성체를 불길에서 끄집어 낼 수 있었다. 그 여인은 경외심으로 가득 차서 성체를 깨끗한 모시 수건에 싸서 옷함에 보관해 두었다. 그 후 전갈을 듣고 달려온 사제가 이 성체를 성함에 모셔 성 니콜라스 본당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성체가 다시 칼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옷함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은 깜짝 놀랐다. 신부가 다시 이 성체를 교회로 가져갔지만 그 다음날 성체는 다시 옷함 안에 있었다. 이 희귀한 사건을 보고 사제는 결국 하느님께서 성체의 기적을 숨기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제는 교회의 주교관의 신부들과 이 문제를 의논한 뒤, 그 집에서 본당까지 같은 길을 따라 주님의 성체를 모셨으며, 이번에는



교회 성직자들과 민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행렬을 이루었다. 시 당국의 책임자들과 암스테르담 구역의 공무원이 같은 달(1345년 3월)에 이 사건의 신빙성을 공적인 기록을 통해 확증했다. 일 년 뒤(1346년) 교구 주교인 아르켈(Jan von Arkel) 주교는 이 성체 기적을 공적으로 공경하는 것을 허락했다. 같은 해에 주민들은 성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집 위에 성체조배 경당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성체조배 경당은 처음부터 "거룩한 곳"이라고 불리어졌다. 그 기적이 일어났던 개방식 돌화덕도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 다음 해인 1347년 우트레터(Utrechter) 부주교가 성체조배 경당을

봉헌했고, 기적의 성체는 수정으로 된 성체 현시대에 전시되었다. 중세에는 수없이 많은 성체 행렬과 간구 행렬이 그 곳으로, 즉 "거룩한 곳"에 있는 성체의 주님께로 이어졌다. 매년 3월에 열리는 성대한 기적 행렬 때에는 사람들은 성체 조배 경당에서 성 니콜라스 성당까지 1345년에 거행되었던 첫 번째 성체 행렬이 있었던 길을 따라 갔다.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많은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 "암스테르담의 기적"은 아주 급속도로 네덜란드를 훨씬 넘어서 알려지게 되었다. 암스테르담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들은 그냥 "거룩한 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전 유럽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왔다. 100년 뒤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다. 즉 1452년 5월 24일 암스테르담에 대화제가 발생했을 때 비록 "거룩한 곳"이 불타고 감실이 파괴되었지만 귀중한 기적의 성체가 모셔져 있던 성체 현시대와 그 위를 덮고 있는 섬세한 천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속히 새로운 경당을 지어 봉헌했다. M

## 만민의 어머니 성모마리아

가톨릭교회가 성모님을 숭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개신교 형제분들을 위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말하는 성모 마리아관을 알려 드립니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 (1) 95개 조항 논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이 95개 조항은 개신교 신자만이 아니라 종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루터의 95개 조항 중, 제75조를 먼저 소개합니다.

"교황의 면죄 중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어 - 불가능한 말이기 는 하지만 - 하나님의 어머니를 능욕한 인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 루터는 그의 95개조 논제 해설집에서 이 제75조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의견들을 견지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거룩한 동정녀로부터 용서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Ibid., 231p.)

이처럼 마틴 루터는 성모 마리아를 명백하게 하나님의 어머니, 거룩한 동정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 마리아의 찬가(The Magnificat) 논문

마틴 루터가 이 논문을 완성시킨 것은 1521년 3월 10일로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파문당한 후에 쓰여 졌기 때문에 보다 더 루터의 성모관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마리아의 찬가 속에서 성모 마리아를 시종일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으며 동정녀 마리아라고 칭하고 있으며 마리아의 찬가 서문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중보의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성모께서 몸소 저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당신의 찬가를 유익 하 고도 철저하게 해설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와 함께... 아멘." (루터 선집 제 3권. 274-275p) 그리고 루터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진지한 공경 심을 알 수 있는

문장을 몇 개 소개합니다."하나님의 어머니는 그 들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과 그 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 관해 말한다."(루터 선집 제 3권, 321p.)

"그래서 그들은 누가 복음 621의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는 하나님의 어머니의 위로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Ibid., 32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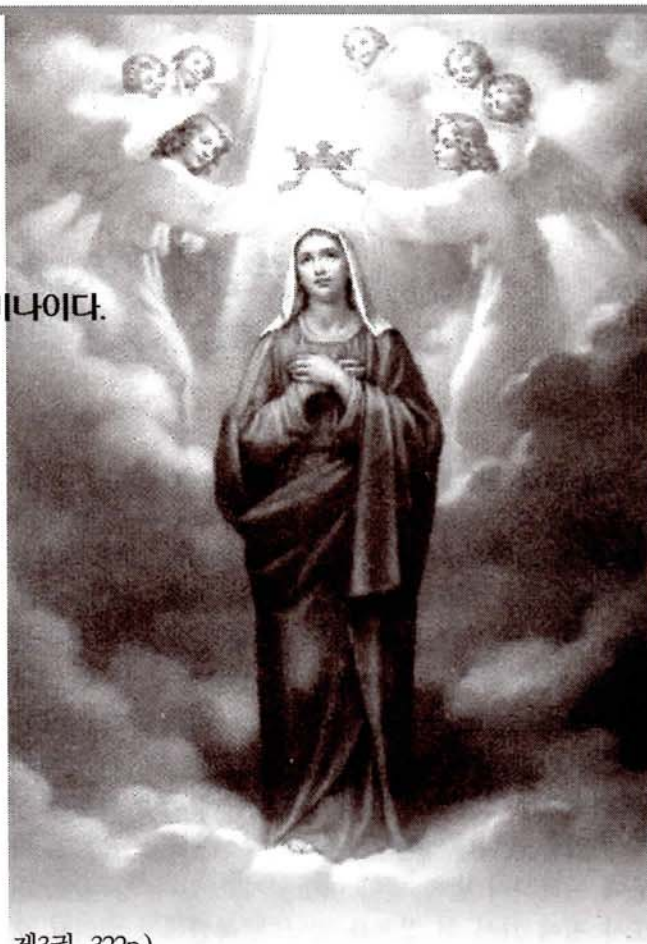
"우리에게 굶주림과 가난을 기꺼이 참을 수 있게 해주는 큰 위안의 말 중에 하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린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Ibid., 325p.)

루터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올바른 공경심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과 헌신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 어떻게 기원을 드려야 할 것인가? 아래의 구절을... 이 하나님을 찾으셨으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당신에게 축복이 있기를 비나이다."(Ibid., 297-298p.)

"동정녀 마리아는 이 구절을 단순히 그녀에 대한 찬



이제부터 영원토록 당신께 축복이 있기를 비나이다.



제3권, 322p.)

그리고 번역이 생략된 마틴 루터의 문장을 하나 소개합니다."죽음에서... 그녀는 당신이 그녀 자신에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원한다."

그는 또 다른 논문에서 창세기 22:18을 해설하면서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어머니는 순수한 동정녀임이 증명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그는 여러 교회 회의(니케아, 칼케돈, 에페소 등)의 천주의 성모 성 확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마틴 루터는 성모 마리아를 대단히 진지하고 정당하며 경건하게 공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종종 성모마리아께 기도를 중재해주시길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모가 죄 없는 분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종교 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하는 성모 마리아는 가톨릭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톨릭 동우회 자료실에서 발췌-

다음호에는 종교 개혁과 교회의 창시자인 울리히츠빙글리(Ulrich Zwingli)와 개혁주의 신학의 완성자이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뱅(John Calvin)이 말하는 성모마리아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양이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그녀가 찬양받지 못하는 시대가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다. 그녀는 이것을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라는 표현에서 보여 주었는데, 다시 말한다면 그녀에 대한 찬미가 그 때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세대에 걸쳐 자손의 자손에 이르도록 계속될 것임을 뜻한다."(Ibid, 299p.)

루터는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마리아도 역시 아낌없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렸으며 자신의 공적으로 보지 않았다. 왜냐 하면 그녀는 죄가 없었지만, 여하튼 ... 어떤 3류 작가들은 마리아의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합당성에 대하여 법석을 떨겠지만 나는 그들보다는 오히려 마리아를 믿기를 택한다."(루터 선집 제 3권, 302p.)루터는 성모 마리아가 죄 없는 이였다고 위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21년6월 8일에 쓰여진 루터의 다른 작품인 "라토머스를 반박한 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습니다.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성모 마리아에게 하셨다고 우리가 믿는 것처럼) 많은 은혜를 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Ibid, 400p.)

루터는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청할 것을 권고합니다."우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원하지 않으면 안된다."(루터 선집 제3권, 303p.)

성모 마리아를 진실 되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경하는 루터는 그의 마리아의 찬가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친애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이러한 은총을 주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아멘."(루터 선집

## 주님! 이곳에도 평화를 주소서

김기수 신부  
맨하튼 성 프란치스코 의 아씨시 한인 공동체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문위원

### 1월 18일, 일요일

아침에 대전 목장집 식구들 모두가 올라와서 함께 주일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 중에 혜영이와 그의 약혼자의 축복식을 거행하였다. 결혼하면 천주교 신자로 영세를 받고 부인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도와 줄 것이며 자녀들을 낳으면 꼭 천주교 신앙으로 교육할 것을 다짐받고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었다. 미사 후에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는 연길로 나갔다. 어제 밤에 허창호씨가 화룡으로 오겠다고 연락이 왔었는데 아마 화룡에 도착해 있을 것이다. 연길에서 화룡 가는 버스를 타고 화룡에 도착하니 벌써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강철호 전 도사 집에 가서 허창호를 만났다. 북한에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데리고 오지 않아 이유를 물으니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 내일 다시 연길에서 만나 가지고 갈 돈과 핸드폰, 의약품, 그리고 병들어 있는 원자씨에게 보낼 인삼과 생강을 사서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연길로 돌아오니 한밤중이었다. 연길-화룡 간도로가 공사 중이어서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 화룡 한번 다녀오는데 5시간이나 소요된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매일 다섯 시간씩 길에서 허비해야 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 내일은 대전목장 구 사장님 일행이 서울로 떠나는 날이어서 오후에 공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아침 일찍 허창호와 만나서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여야 한다. 연길의 영교수님의 집에 가니 방바닥이 석탄가루로 새까맣다. 걸래를 빨아 바닥청소도 하고 화초에 물도 주고 잤다.

### 1월 19일, 월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농장으로 다시 갔다. 허창호에게 줄 서울에서 얻어온 핸드폰과 약품들과 돈을 농장에 두고 왔기 때문이다. 물건들을 가지고 연길로 돌아와 아침 10시에 허창호를 만났다. 나도 아침 먹을 여유가 없었지만, 허창호도 남의 집에서 자고 나서 아침도 제

대로 먹지를 못한 것 같다.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면길을 갈 허창호에게는 고기를 먹게 하고 나는 청국장을 먹었다. 식사 후 백화점에 가서 우선 허창호에게 가방을 하나 사주고 핸드폰 가게를 찾아가 핸드폰에 번호를 넣었다. 길으로 보기에 북한에서 온 표시가 역력한 허창호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불안하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늘 4시까지 화룡에 가야만 두만강을 넘을 수 있다고 한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화룡에 도착하기가 어렵다. 인삼을 사야하는데 어디에서 살지를 몰라 아네스 자매님께 부탁하여 구 사장님 일행을 공항에서 배웅하고 나서 함께 인삼을 사러 시장에 가기로 하였다. 허창호를 데리고 공항으로 갔다. 혹시 검문이 있을까 나도 불안하였지만, 허창호는 안절부절 못한다. 애써 태연한척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나도 내심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다. 12시 30분에 공항에 가 조금 기다리니 구 사장님 일행이 왔다. 비행기 시간을 잘못 알아 비행기는 이미 떠났다고 한다. 나는 허창호를 보내기 위해 우선 아네스 자매님께 허창호와 함께 인삼과 생강을 구입하고 원자씨에게 줄 돈을 주어 화룡으로 보내도록 하고 나는 영교수님택으로 와서 일들을 정리하고 도문으로 들어갔다.

### 1월 20일

내일은 설날그믐이고 모레는 설날이다. 헬레나와 구 사장님 일행이 서울로 떠나기 때문에 오늘 헬레나와 요안나 자매님에게 화룡과 남평, 승선 마을, 특히 무산을 보여주고 싶어 아침 일찍 서둘렀다. 길용이가 택시를 몰고 왔다. 계산툰으로 해서 용정, 화룡에 도착하여 지난번에 만났던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온 차 경준씨를 만났다. 중국에 있지 못하고 두만강을 다시 넘어 가겠다고 하여 중국돈 2,000 위안을 주며 어린아이에게 옷도 사 입히고 조심히 넘어 가라고 하였다. 요안나 자매님께서 입고 있던 잠바를 그의 부인에게 선물 내



주셨다. 나도 입고 있던 잠바를 주고 싶었지만 속에 너무 허술하게 입고 나와서 그럴 수가 없어 안타까웠다. 그 대신 400 위안을 더 주고 옷도 사 입고 딸아이에게도 옷을 더 사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가방에 넣고 다니던 장갑과 목도리, 양말을 다 꺼내 주었다.

남평, 로파를 지나 승선까지 갔다. 가는 길에 두만강 변 마을을 헬레나와 요안나 자매님에게 구경시켜 주었다. 무산은 지난해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 밝은 대낮인데도 거무튀튀한 죽음의 정적이 흐르는 유령의 마을 그대로이다. 인구 10만 정도의 큰 도시가 아직도 자동차 한 대 보이지 않는다. 승선에 도착하니, 벌써 해가 기울었다. 자동차에 돌아올 휘발유가 부족하여 주유소를 찾으니 주유소가 없다. 아무래도 화룡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추운 날씨에 중간에서 자동차가 서면 다 얼어 죽을 판이다. 기름을 구하려고 상점 이곳저곳을 둘러봐도 모두가 없단다. 마지막으로 조그만 상점에 들어가니 다행히 기름이 있었다. 화룡에서보다 두 배는 더 주고 한통을 넣었다. 그래도 다행이다. 화룡에 도착하니 캄캄한 밤이다. 점심을 못 사준 것이 미안하여 화룡에서 저녁을 먹기로 하였다. 작년에 수녀님과 의사들 일행이 왔을 때 사줬던 양고기 썰점으로 가서 양고기구이를 먹었다. 네 명이서 배부르게 먹었는데 중국돈 40원이다. 5달러 정도이다. 싸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연길에서 내려 영 교수님택에 들러 청소도 하고 목욕도 하였다.

#### 1월 21일, 수요일

오늘은 설날 그믐날, 아침에 후원회원님들과 회원님들의 지향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였다. 오전에는 연길에서 그 동안 밀린 일기를 쓰고, 메일도 체크하고는 오후에 목장으로 들어갔다.

#### 1월 22일, 목요일

아침에 대전 목장 식구들 모두 올라와서 함께 설날

미사를 봉헌하였다. 향을 피우고 조상님들의 이름을 써 놓고 미사 중에 주님께서 우리들과 후원회원님들, 봉사자님들의 조상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청하며 주님과 조상님들을 위해 절을 하였다. 아침식사 후 공항으로 가 헬레나와 구 사장님 일행을 배웅하고 목장으로 돌아왔다. 산속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여 가보니 깊은 산골 속에 비닐 같은 것으로 움막을 지어 놓고 두 부부가 살고 있었다.

#### 1월 23 일 금요일

오늘은 오후에 연길로 나왔다. 내일 아침에 화룡에서 폐병에 걸려있는 박 철균씨와 어린 아들이 한국으로 가는 일행이 있어서 그 일행에 끼어 가게 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태국까지 가는 여비만 10,000 위안이 든다고 하였다. 만일 한국에 못 가면 중국에서 계속 폐병 치료를 하면 한달 약값만도 500 위안이 넘는다고 한다. 약 값도 문제이지만 누가 어린애까지 달린 환자를 돌보아 줄 수 있을지 막연하였다. 그래서 자기는 꼭 한국을 가고 싶으니 도와달라고 사정하였다. 듣고 보니 정말 딱한 사정이다. 한국에 가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한국에 가면 이런 폐병은 금방 치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M



##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를 도와주려고 왔다."

메주고리예의 10가지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될 페타 류비지치 신부와의 인터뷰

질문 - 페타 신부님, 증인 미리안나가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10가지 비밀을 세상에 발표하라고 신부님이 선택 받으셨을 때 그 때의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페타 신부 - 어느 날 메주고리예의 몇몇 사람들로부터 미리안나가 성모님께 받은 비밀을 세상에 발표할 사람으로 나를 택하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줄 알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일인데 농담을 하다니!" 그 후 며칠동안 나는 "정말 내가 선택됐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염려가 되었습니다. 미리안나가 나를 택하였다는 것 자체가 마치 조그만 비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영예이며 큰 책임감을 느꼈으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미리안나는 나를 만났을 때 "그 때가 오면 신부님께서 비밀을 세상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들을 지내며 살아 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결정적인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질문 - 비밀에 대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비밀이 언제 발표될 것이며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게 될까요?

페타 신부 - 비밀은 말 그대로 비밀이기에 그 내용은 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알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위기에 처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불화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모든 비밀이 주는 메시지는 지금 우리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기에 우리 자

신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가 주어질 것처럼 살지 말고, 매 순간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 - 신부님은 10가지 비밀을 모두 세상에 발표하시겠지요. 그 비밀을 어떻게 발표하실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어느 비밀이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구한 표징이 될까요?

페타 신부 - 그 날이 오기 열흘 전에 미리안나가 나에게 성모님이 주신 양피지를 전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10가지 사건들이 세상에 각각 일어나기 시작하는 날짜와 요일을 알 수 있도록 복되신 성모님께서 미리안나에



게 내려 주신 가로 20센티 세로 28센티 크기의 양피지 판입니다. 거기에 모든 비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첫 번째 비밀 하나만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 비밀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나는 7일 동안 단식하고 기도하고 비밀이 실현되기 3일전에 무슨 일이 세계 어느 곳에, 며칠, 몇 시, 몇 분에, 얼마동안 일어나게

될지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안나는 처음 두 비밀이 메주고리예에 관련된 것이며 정화의 시기에 대한 경고를 세상에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 본당의 작은 마을 비야코비치에 찾아오시고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매일발현하시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비밀이 실현되면 세상 사람들은 목격증인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셨다는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팟브르도 라고 불리는 발현 언덕에서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구한 표징입니다. 그것은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발현을 하느님께서 그리고 평화의 모후께서 이 세상에 내려 주신 선물로



받아 드리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질문 - 첫 번째 비밀이 세상에 발표된 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페타신부 - 복되신 성모님께서 지금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시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더 많이 기도하고 회개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고 하느님께 회심하여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결심할 때입니다. 성모님이 말씀하신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들이 더욱 진실 되고 책임감을 갖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많은 기적의 표징들과 큰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회개할 것이고 영적인 치유, 육체적인 치유들이 메주고리에 오신 평화의 모후를 증거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 회개와 기적적인 치유가 발현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비밀의 실현이 교회가 메주고리를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준비가 될까요?

페타신부 - 기적적인 치유에 관해 말씀하셨지요. 메주고리에서 있었던 현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기적적인 치유들이 성모님 발현의 진실성을 증거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외적인 조건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두 가지 기적만 있으면 발현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메주고리를 찾아 온 수많은 순례자들의 체험한 증언이 두 권의 책 "평화의 모후의 부르심" 과 "은총의 시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메주고리에서 평화의 모후와 그 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비밀의 실현은 메주고리를 인준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로 하는 마지막 조건이 될 것입니다.

질문 - 페타 신부님, 이 글을 읽는 이들에게 20여 년 동안 성모님의 발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

겠습니까?

페타 신부 - 나도 가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왜 평화의 모후께서 우리들, 고통 받는 크로아티아 사람들에게 은총과 선물을 내려 주시는 것일까? 우리의 지나간 역사는 환란과 박해가 되풀이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몇 해 동안이 아니라 몇 세기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늘도 보고만 계실 수는 없었나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복되신 성모님께서 오셔서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의 어머니이고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를 도와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를 내 아들 예수께 데려가기를 원한다. 하느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여라. 회개하고 단식하여라. 굳은 믿음으로 진실 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거라."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외에 제가 더 무엇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 진 이 은총이 넘치는 시간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온전히 우리 자신을 그 분께 봉헌합시다. 우리가 살아 있는 매 순간 순간마다 회개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아 갈 때 우리 자신과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M

성모님께서는 미리안나에게 평화의 시기에 있을 10가지 비밀이 일어날 날짜와 시기 어려움에 대하여 기록된 양피지를 주셨다. 그 양피지는 불에도 타지 않으며 찢어지지도 않고 양피지에 적힌 글은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해독 할 수도 없다. 다만 때가 되면 성모님께서 알려 주시도록 되어있다. 성모님께서 1983년 9월 13일 목격증인 미리안나 드라기 체비치에게 성모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이 10 가지 비밀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될 신부를 정하라는 말씀에 따라 프란치스코 수도회 사제 페타 류비지치 신부를 정하였다. 편집실주

## "내가 교황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메주고리예에 갔었을 것입니다."



1) 1995년 2월에 볼리비아의 라 파즈, 아순시온의 대주교의 메주고리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요한 바오르 2세께서는 "메주고리예에 관한 모든 것을 인정하십시오."라고 대답하였다.

2) 1995년 3월 22일에 비스카는 보스니아 내전으로 불구가 된 350명의 크로아티아 병사들을 데리고 교황님을 만나고자 로마로 갔었다. 교황께서는 그녀를 알아보셨다. "메주고리예의 비스카가 아닙니까?" 라고 그녀에게 질문하셨다. 비스카는 그분에게 로사리오를 드리며 말하였다: "이것은 발현 중에 성모님께서 축복해 주신 특별한 것입니다." 교황께서는 그 목주를 받으시며 비스카에게 "나를 위해 성모님께 기도해 주세요,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다.

3) 1995년 4월 6일, 크로아티아의 사절단이 교황을 공식 방문하였다. 사절단엔 Tudjman 대통령과 Radic부통령 그리고 자그레브의 Kuharic추기경이 있었다. 교황께서는 몇 마디 말을 추가하였다. "저는 스포리트, 리아비스트리카, 메주고리예를 가보고 싶습니다!"

4) 1986년 6월 메주고리예로의 순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목 조언을 찾고자 하는 이탈리아의 12 주교들에 대한 질문에서 "사람들이 메주고리예를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고해, 속죄, 단식한다면 하느님께 회심하여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메주고리예에 가게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5) 1986년 4월 2일 교황을 알현 중에 Ivan Dugandzic신부에게 교황께서는 그에게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보고 있다고 하였다. "교황님께서는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에 대해 행복한 결과가 나오도록 매일 기도한다고 모든 이에게 말해도 됩니다."

6) 1990년 4월 15일자 National Catholic Register에 기재된 텍사스의 산안젤로의 Michael D. Pfeifer주교는 교황님과 있었던 메주고리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다.

"1988년 4월에 텍사스의 주교들과 로마를 방문하는 동안에 교황과 나누었던 사적인 대화에서 메주고리예에 대한 교황님의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교황님께서 메주고리예에서 일어난 좋은 열매들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주교들이 교황과 메주고리예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교황께서는 그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다시 말씀하셨고 메주고리예의 지금까지의 메시지는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셨습니다."

7)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발현에 대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전념하는 이탈리아의 의사들에게 1989년 8월 1일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탈리아 로마의 부주교인 Bishop Paul Hnilica주교가 보고하였다. "오늘날의 세계는 초자연적인 감각을 잃어버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며 메주고리예에서 기도, 단식, 속죄를 통해 그것을 발견합니다."

8) "메주고리예는 거대한 영신 적 중심지입니다." - 1990년 2월에 있었던 교황님과 대화에서 브라질의 플로리아노폴리스의 부주교인 Murilo Krieger주교가 그의 메주고리예로의 4 번째 순례를 떠나기 전에 교황님에게 보고하였다. 교황께서는 Krieger주교의 요청에 동의하시고 메주고리예의 목격자들에게 교황의 축복을 주었다. (National Catholic Register, April 29, 1990)

9) "내가 교황이 아니었다면 난 벌써 메주고리예에 갔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부주교인 Bishop Paul Hnilica주교는 모스크바에서 교황을 대신하여 회의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오는 길에 메주고리예를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교황으로부터 충고를 받은 후 그 이야기를 1989년 4월 21일 보고하였다. 교황께서는 충격을 받은 후 목숨을 건진 것을 중재하신 복되신 어머니를 신뢰하고 있다. [M]

메주고리예 홈페이지의 The Pope on Medjugorje 를 번역

##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은 아닌 선물

스테파노 곱비신부  
성바오로 수도 공동체회 신학박사  
마리아 사제 운동, 다락방 기도회 창시자

77. 10. 1. 예수 아기의 성녀 테레사 대축일, 첫 토요일

1. 누구나 다 내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오직 내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2.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 부름에 응답하도록 준비시키려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를 (지켜보며) 따라다니고 또 (앞에서) 이끌어 주곤 했는지! 너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티 없는 내 성심에 받아 안고 있었고, 너희가 인생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만사를 내가 친히 안배해 온 것이다.

3. 너희의 인생전체가 내 사랑의 섬세한 자수(刺繡)이다. 이제 이 계획은 만인의 선 익을 위해 되도록 빨리 이뤄져야 한다.

4. 이 일에 불려진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러나 염마는 그들을 통해 모든 자녀들에게 구원 가능성을 주고자 한다.

5. 보아라, 내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서둘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누가 그들을 도와주랴? 누가 그들을 붙잡아 주랴?

6. 보아라,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아직은 씨 뿌릴 줄 아는 나이도 채 안된 젊은 시절에, 이미 죽음의 행업들을 수확하고 있느냐! 그들이 몸



붙여 살고 있는 세상이 그들을 독살(毒殺)하고 있는 것이다.

7. 오늘날에는 너그러운 영혼들도 온 교회에 만연된 어둠에 무수히 휩쓸려 가고 있다!

8. 너는 이 곳에서 이미 신앙을 상실한 몇몇 형제 사제들을 만나보고 나의 고통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여전히 사제직을 행사하고 있는 그들은, 그럼에도 오류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다. 소경인 그들이 다른 이들을 이끌어 역시 눈멀게 하는 것이다. (\*마태 15,14루가 6,39이사 42,19 참조)

9. 이 곳은 이 나라 전국과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가는 진보주의와 배교의 진원지(震源地)이니, 너는 바로 여기에서 나의 고통을 나누어 가라.

10. 여기에서 내 원수가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그러나 보상의 표지로, 내가 오늘 내 '운동'의 사제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자 했던 곳도 또한 여기이다.

11. 내 위대한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선물은 모든 이가 다 받는 것이 아니기에, 지금은 부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게 응답해야 할 때이다.

12. 오래지않아 너희에겐 시간이 없을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날<日>) 수(數)가 다 찰 것이기 때문이다. M



## "백만장자에서 선교사로

페르디난드 로칸티는 미국의 후로리다와 뉴잉글랜드에서 BMW, VOLVO등 고급차를 파는 딜러로 \$14억 달러의 큰 재산을 소유한 백만장자였지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1992년 그는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무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으려고 피신할 목적으로 여행 삼아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메주고리를 다녀 온 후 지금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의 체험은 참으로 놀랍다.

1992년 9월 12일 그는 아내 바브라와 함께 메주고리를 방문하였다. 발현 목격자 이반이 발현 산에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는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갔다. 바브라는 "우리는 성모님이 발현 한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못하였지만 몇 개의 촛불을 들고 발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처음 발현 하셨다는 곳에 도착하자 웬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수북히 쌓여있는 돌들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녁 9시쯤 주위는 어두웠고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몰랐으나 우리는 '하느님, 아브라함, 야곱, 이사악, 그리고 모세의 하느님, 제가 여기 이곳에 와있는 지 아십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페르디난드는 그 당시의 상황을 한 사제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다. "저는 머리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어떤 손이 저의 턱을 들어 올리는 것을 느꼈고, 저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올려졌습니다. 그 때 하늘이 열려 있었고 주위가 대낮처럼 환



해지며 천국이 열리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마치 하얀 모습의 거대한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손짓을 하면서 "봐라! 하고 말하고 싶었으나 눈동자도 움직일 수 없고 내 손은 그냥 얼어붙어 말조차 못하게 되어 아내에게 속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브라, 하늘을 좀 봐, 그리고 무엇이 보이는지 내게 말해줘." 그녀는 "성모님이 보여요!"하고 말하였습니다. 성모 어머니는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뵈자마자 우리의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느님의 어머니를 뵈고 나

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변화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페르디난드의 이야기를 들은 그 사제는 이런 똑같은 체험을 다른 순례자에게도 들었다고 말해주었다.

엄청나게 큰 성모님의 발현이 끝났을 때, 그 주위에는 별들이 남아 빛을 비추며 있었다. 그는 모두가 이 발현을 보았으리라고 믿었는데 의외로 바브라와 자신 그리고 다른 한 명만이 보았다. 성모님의 얼굴 모습은 아주 하얗게 맑고 아름다웠으며 하늘색보다 옅은 천국의 빛으로 쌓여있었다. 바브라도 "그날 하늘은 너무나 어두워서 산으로 올라가는 길도 못 찾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발현이 시작 되었을 때 나는 그분의 하얗고 맑은 얼굴을 보았는데 아주 큰 모습으로 하늘에 떠계셨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분은 여전히 그곳에 계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깊은 평화 속에서 "예수님, 저를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두려움 없이 저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퍼디난드는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중간 5번째 줄 마지막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함께 순례를 갔던 사람이 카트를 밀고 오는 승무원에게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퍼디난드의 의자에 걸터앉았다. 그는 자기 핸드백에서 기도 책 (Pieta book)을 꺼내어 보여주며 "이분을 본 적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자 퍼디난드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기도 책에 있는 사진은 자기가 메주고리에서 보았던 성모님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1993년 어느 날 퍼디난드는 기도 중에 예수님의 발현을 보았다. 그분은 "퍼디난드,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위하여 장님이 되어 휠체어에 앉아 살아 갈 수 있겠느냐?" 고 물으셨다. "오 그 순간 저는 마치 온 가족을 잃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눈을 꼭 감고 몸부림치며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이 막혀서 숨을 쉴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절대로 '예' 할 수 없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 분이 원하시는 것을 피해서 그 분께로부터 멀리 도망을 칠 생각만 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나타나시어 "작은 퍼디난드야, 나는 너에게 나의 성심을 준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모님이 주시는 강한 힘이 온 몸에 가득 차기 시작했고 저는 깊은 평화 속에서 "예수님, 저를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두려움 없이 저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퍼디난드는 두뇌부근이 근육무력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게 되었고 휠체어에 앉아 살아가게 되었다. 그는 1994년 9월 16일에 시력을 잃었는데 1994년 10월 13일에 파티마의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했다 그동안 모아 두었던 많은 재산을 정리하고 집도 작은 것으로 바꾸고 모든 부채도 법에 따라 청산했다. 그리고 "성모님이 이끄시는 대로" 개인이나 성당 등에 남은 돈을 기증하였으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새 차도 사주며 자기의 재산을 나누었다.

언젠가 퍼디난드가 버만에 있는 성 마카엘 대학에서 강연하기 전에 그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영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았는데 성수를 뿌리고 무사히 강연을 마칠 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가 목주의 기도를 하면 우리는 성모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그 대신 사탄은 엄청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험악한 세상 이기에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끊임없이 목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주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게을리 하면 사탄은 다시 더 큰 힘을 가지고 덤빌 것 입니다." 라고 퍼디난드는 말한다.

지금은 인디애나 그란지에 살면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편으로는 영적인 그림들을 직접 그려서 팔아가며 생활하고 있는데 그는 과거에 그림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다. 퍼디난드는 예수님께로부터 "미국이 죄 없는 태아들을 죽이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통에 시달릴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하느님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실 것이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뱀을 보내시어 그들을 죽게 만드신 분도 같은 하느님이라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다. **M**

(마이클 브라운의 [www.spiritdaily.org](http://www.spiritdaily.org) 에서 발췌)





## 사랑을 거스린 죄는 우리를 연옥으로 가게 합니다

교만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큰 덫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리 큰 죄 중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임종시 마지막 자비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결정의 순간이라고 한다. 그 때 하느님을 거부하면 하느님의 현존이 전혀 없는 지옥이라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들은 정화되는 곳, 즉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연옥”으로 가게 된다.

이것은 오스트리아 손텍(Sonntag)에 사는 연옥 영혼을 보는 신비가 “마리아 심마(Maria Simma)”의 말이다. 그녀는 임마누엘 수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요, 정말 그래요. 주님께서는 각 영혼에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분을 뵈는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임마누엘 수녀와 마리아의 이 인터뷰는 소책자로 출판되어 SpiritDaily.org 웹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연옥에 있는 그 영혼들은 고통스럽지만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영적 지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이미 뵈었고 하느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심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고통을 통하여 자신들의 모든 죄와 악습들이 하루 빨리 정화되어 하느님의 곁으로 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임마누엘 수녀는 어떤 죄가 영혼들을 가장 많이 연옥으로 가게 하느냐고 마리아에게 물었다. “사랑을 거스른 죄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와 굳은 마음, 미움, 증상모략 이웃에 대한 명예 손상, 교만한 불평들, 그리고 비판 등이 우리의 가장 큰 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만에서 오는 것인데 교만은 사탄이 가장 좋아 하는 큰 덫입니다.” 라고 마리아는 말한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겸손은 많은 큰 죄들을 없애준다. 마리아는 한 예를 들어주었다. “낙태를 했던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아주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충실했던 남자와 거의 비슷한 날 죽었는데 이 여인이 그 남자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낙태를 했던 자신의 죄를 깊이 통회하고 무척 겸손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그 남자는 신앙생활은 했지만 교만하여 자주 남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불평하며 남을 힐끗었기에 연옥에서 더 오래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죽이는 끔찍한 낙태죄를 가볍게 생각하면 이것 자체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 수도 있다고 마리아는 덧붙였다. 우리는 절대로 겉을 보고 이웃을 판단하면 말아야 한다. 심판은 오직 각 영혼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리아는 같은 동네에 살던 한 남자의 영혼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는 살아생전에 지은 죄를 위하여 오직 미사 세 대만 봉헌된다면 그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했으며 그 영혼은 “하느님께서 내가 살아 있을 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내 목숨을 생각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구한 적이 있음을 아시고 저를 그 분의 천국으로 불러 주셨으니, 저는 이일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랑은 무수히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리아는 그녀가 영혼들을 만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그녀가 체험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은총이며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구원하는데 미사가 가장 강한 무기이며 우리들이 일상 삶 안에서 오는 고통들을 인내로 받아드리는 것이 연옥 생활을 면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고통을 받아들이고 봉헌하는 것은 지상에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강한 힘을 준다. 한 예로, 1954년에 그녀가 사는 동네에 아주 심한 사고를 당했다가 나중에 기적적으로 보호된 여인이 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모든 고

## 미사를 드려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하루라도 더 일찍 천국에 들어 갈 것입니다.

통을 하느님께 봉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여인이 천국을 차지하는 은총을 받았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고통은 우리의 내적 자신을 죽이고 우리가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라고 마리아는 말한다. 회개는 아주 중요하고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게 해주지만 그 죄로 인한 결과는 그대로 남아 있다.

만일 영혼이 죽는 순간에 대사를 받기 원하면(천국으로 가는 은총) 모든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모든 고통을 주님께 봉헌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여야 한다. 고통은 하느님의 사랑을 일깨워주는 가장 큰 증거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수많은 영혼들도 구원할 수 있다.

마리아에게 동성연애자들에 대하여 물었을 때, “그들의 영혼을 잃지는 않으나 동성연애는 진정 악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연옥에서 수많은 고통으로 정화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천국으로 곧장 올라가는 사제들도 많지만 성체와 기도에 대한 신심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에 연옥에 머무르는 사제들 많다고 한다. 그녀는 거짓 발현들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사탄도 치유를 하는데 그 치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종교를 믿던 이들도 천국에 가느냐는 질문에 마리아는 “예, 그들도 천국에 갑니다. 누구든지 하느님께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살았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였다.

www.SpiritDaily.org 에서 기사를 발췌

##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저를 맡겨주세요

오래전에 다른 이와 함께 자기를 낳은 친어머니를 연못에 빠트려 죽이려 했던 젊은이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다. 밭에 채이며 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머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에게 손을 뻗어 살려달라고 구원을 청했다. 이것을 본 아들은 어린시절 자기를 안아 주던 어머니의 손을 보고 회개하여 어머니를 구했다고 한다. 이 무서운 사실은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부모, 형제, 인척들이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자.

우리가 그들에게 연민이 없는 무관심과 차가운 마음으로 있다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보다 나을 게 없을 것 같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목숨을 내걸지는 않더라도 작은 관심과 선행을 함으로써 자신은 물론이고 연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젊어서 죽은 아들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어머니가 있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루 말할 수 없이 빛나는 아름다움과 큰 기쁨에 충만하여 가고 있는 젊은이들과 아들을 보았다. 그녀는 일행들 뒤에서 간신히 걸어가고 있는 아들을 향해 부르짖었다. “애야, 어찌하여 그토록 힘들게 혼자서 뒤를 따라가고 있느냐?” 아들은 젖은 옷을 어머니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흘리시는 이 눈물에 젖어서 무거워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부디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면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저를 맡기시고 미사를 드려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하루라도 더 일찍 천국에 들어 갈 것입니다. M

성모님께서 매주고리에에서 목격 증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연옥 영혼들이 크리스마스때에 가장 많이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나를 안고 올라가신 성모님

홍 진유 (로사)

나는 10월 27일에서 11월 7일까지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그런데 거기에서 난 많은 은총을 받았다. 참 재미있었고 즐거웠다. 첫째 날은 루르드라는 기적 수 있는 곳에 갔었는데 처음엔 거기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늦게 왔다고 못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도 3일을 기다리다 못하고 간 사람도 많다고 화를 내며 우리는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같이 간 팀이 그럼 로사(진유)만 들어가게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않된다면서 가라고 화를 냈다. 그 때 난 우리 순례 단 사람들에게 너무 고맙다. 모두에게 말이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아픈 아이라면서 제발 로사만이라도 들어가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럼 이 아이와 엄마만 들어가게 해 준다 해서 엄마와 내가 들어갔다. 그런데 거기에 아픈 할머니가 한 분 계셔서 엄마 대신 그 할머니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그 지키고 있던 아저씨가 그럼 엄마까지만 들어오라고 해서 나까지 3명이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팀의 도움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는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너무 고마워서 말이다. 또 들어가서 모두가 들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옷을 벗고 물에 담그고 빼는 곳인데 물이 차가웠다. 그래서 난 들어갈 때부터 추워서 덜덜 떨며 들어갔다. 물에 담궜다 빼는데 갑자기 바깥은 차가운데 마음부터가 포근해지면서 점점 따뜻해지는 것이었다. 그 때 난 성모님이 안고 계시는 걸 깨달았다. 나오고 나니 기적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태도가 확 바뀌면서 코리아만 들어가라고 해서 다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은 메우고리에 있는 발현 산에 갔다. 맨 발로 돌들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힘들고 지쳐서 눈물이 나왔지만 2단부터 생기가 나고 기쁘게 동반하였고 나는 성모님이 날 안고 올라 가셨구나 생각했다. 산 정상에 가서 묵주의 기도를 성모님께 5단 바친 후 묵상하던 중 성모님께서 흰 가루처럼 날아와 날 안아 주셨다. 그 날 밤 10시 등반 시엔 성모님이 또 안고 올라가 성모님 발현 한 걸



본 사람인 이반을 보고 또 성모님이 그 날 밤 오신다 하셔서 갔다. 성모님께서 오시는 순간 별똥별이 떨어졌는데 엄마와 나만 보았다. 발현순간 흰 모습의 성모님이 그림자처럼 보였는데 다시 확인하려고 눈을 뜬 순간 없어져 성모님인걸 알았다. 또 매우 기뻐다. 다음날 10시에는 미리아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곳은 마약 중독자들과 에이즈환자가 회개하여 치유된 사람들도 왔다. 나는 미리안나 성모님이 발현 시 바로 앞자리에 있었고 모두 기도하는 중, 침묵 중에 눈을 45도 각도로 성모님을 쳐다보는 얼굴이 행복해 보였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소리는 들리지 않으면서 대화를 하였다. 기쁜 얼굴로 대화하였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였고, 찢히기도 하며 마지막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것도 기쁨의 눈물이라 느껴졌다. 나도 기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곳이 바로 천국이라 느꼈고, 그 곳은 체나콜로라는 곳인데 그 공동체의 노래와 기도는 잊지 못할 미리 가본 천국 같았다. 다음날은 십자가산에 가기 전 새벽 5시쯤, 묵주기도 5단을 바치는데 2단에서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고, 3단에서는 두 팔 벌린 성모님을 보았다. 십자가산 등반 시 1처가 얇은 우면산 만한 곳인데 5처에서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았는데, 모든 팀들이 기도하고 나도 저번처럼 안고 올라가 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즐겁고 기쁘게 올라갈 수 있었다. 15처까지인데 다 올라가고 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내려올 때 넘어져서 발을 삐었는데 걸을 때마다 아팠다. 그런데 이 정도쯤은 성모님이 낮게 해 주시겠지! 이곳에 와서 모든 사람들이 치유 받았으니 나도 그렇겠지! 믿고 내려왔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되겠지 생각하며 말이다. 그리고 체나콜로 공동체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강당에

서 잠이 들은 사이에 엄마가 그러는데 발목이 두 번 360도로 부드럽게 돌아갔다고 한다. 엄마는 성모님이 치유시켜 주신다면 낫겠지 하고 기도했는데 잠에서 깨고 나니 발목이 완전히 나서 아무렇지도 않았고, 혹시 몰라 발을 돌려 보았더니 그렇게는 절대 돌아갈 수가 없었다며 엄마가 말했다. 기적이었으며 가서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고, 가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벨기에에 있는 친구들 말이다. 또 난 그곳을 갔다 와서 재미없던 기도도 참 재미있고 기뻐고, 성모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다. 또 참 좋고, 은총 많은 성지순례



였다. 또 무엇보다 기쁘게 가족 기도를 다 함께 성모님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게 매우 기뻐다. 나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며 이 순례기를 마친다. M

(이 글은 홍 진유(로사)는 방배동에서 초등 학교 3학년 때인, 2년 전 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종양이 뇌에 생겨 2년간 투병하고 있었는데 이제 회복하여 순례를 다녀 온 후 쓴 일기입니다. 지금 로사는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투병 중에 쓴 글과 편지들을 책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기사를 보는 분들이 로사와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 "예수님, 제가 여기 있어요"



### 찬미예수님

성모님께서 나를 메주고리로 첫 초대를 하여 주신 4년 전에는, 그래도 내 자신에 기댈 수 있는 무엇이 조금 남아 있기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었다. 그 후 2년여의 더 어려운 나날들을 지내면서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 것도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자발적으로 메주고리에 순례를 떠났다. 모든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긴다 하면서도 나를 짓누르는 현실의 상황들은 공포를 느낄 지경에 이르렀으며 나의 모든 기도와 신앙생활의 모습이 빈 껍데기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2003년 5월 성모님의 달에 열심히 순례를 하고 집으로 돌아 올 때는 몸과 마음이 평화로 가득 하였으나, 두 달을 못 넘기고 또 풀리지 않는 일에 근심, 걱정으로 짓눌렸다. 주님께서 매듭 하나 만 풀어 주시면 모든 일이 평화롭게 됨을 알 수 있었는데 계속 미루고 변명하며 나의 기도는 또 힘을 잃고 말았다.

2003년 말 과 2004년 초를 다시 주님께 봉헌하며 목숨을 바치듯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기로 하고, 남편과 함께 불러 주님과 어머니의 그 부르심에 응답드릴 수 있는 은총까지 주심을 감사했다. 특별히 나는 이번 순례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을 온전히 내안에 담고 싶었다. 순례 일행들의 체험과 변화 기쁨에 함께 하며 나 또한 성모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위로와 치유의 눈물로 내 존재 전체를 봉헌하며 기쁨과 평화가 충만했다. 그리고 돌아 와선 모든 사람들에게 메주고리에서 기다리시는 성모님의 사랑을 이야기 했다. 순례를 권장하고 나 또한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성체로 매일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의 현존 생활을 새로이 하고자, 현존하시며 항상 기쁨을 주시는 성모님과 하루하루를 함께 하며 지냈다. 그 후부터 계속 이어지는 전례마다 특별한 방법으로 매번 은혜로운 잔치에 초대하시고 기쁨과 깨달음을 새롭게 해주시며 근심과 걱정, 분노 앞에서 성모님께 봉헌하는 짧은 기도에도 평화와 사랑으로 대답해주시는 나날들 이었다.

2004년 성모님의 성월에 또 다시 성모님의 초대를 받았다. 도저히 형편이 안돼는 나에게 한 자매의 전화에서 "자매님, 성모님이 초대하시나 봐요."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하고 바로 기쁘게 응답했다. 모든 식구들은 함께 기뻐하며 남은 시간을 열심히 준비하던 중 가까운 이로 부터 마음에 비수가 꼽히는 힐책을 들으니 성모님께서 큰 은총으로 기다리심을 믿으면서도 순간 주저하기도 하였었다. 곧 신앙이나 믿음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임을 깨닫고 그분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못 가게 하려는 유감으로 알고

집안 식구들 아무에게도 그 순간의 상처를 나타내지 않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기다리다 곧 성모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로사리오 성월에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갔다. 생각지도 못했던 전날의 비수와 같던 힐책 탓에 더더욱 꼭 예수님의 현존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반석 되어 주시기를 열심히 열심히 기도드리며 순례일정을 잘 따랐다. 매일 매일 성체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며 성시간 예절 때 Thea 주시는 회개와 기쁨의 은총은 폭포수와 같았다. 또한 같은 일행들의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모습은 순례를 더욱 은혜롭게 해주었다. 맨발로 오르는 십자가 산의 순례는 주님께서 당신이 홀리신 거룩한 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죄와 상처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정화의 시간이었다.

메주고리예를 떠나는 일정을 하루 앞두고 성시간 1시간 전에, 나는 이번에 불러 주심에 감사드리고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리라 작정하고 성 야곱 성당의 감실 앞에 조용히 앉았다. 제대 바로 앞바닥은 차거웠지만 그 곳은 열정이 넘치는 한국 아줌마 부대들이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께 올리는 찬미와 탄원의 자리였다. 아무도 없는 제대 바로 앞에 앉아 조용히 평화의 묵주 기도를 바치고 아가서 2장 14절을 천천히 세 번 봉독하였다. "바위틈에 숨은 나의 비들기여, 벼랑에 몸을 숨긴 비들기여 모습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그 고운 목소리를 그 사랑스런 모습을" 그리곤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제가 이대로 여기 있어요."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1분 아니면 2분 정도의 순간이 흐르고 "우르릉." 땅이 흔들리는 지진에도 나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 힘이 아닌 듯 하다.) 점점 심해지는 지진에 뒷좌석에 앉아 계시던 몇 분들의 술렁거림이 들리는 듯 하더니 지진의 강도는 조금씩 다시 사라졌다. 마지막 지진에는 내 마음도 순간적으로 "앗" 할 정도로 강한 지진이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것이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로 마지막 성시간을 감격 속에서 마칠 수 있었다. 만일 그 시간 내 눈으로 감실에서 살아 걸어 나오시는 예수

님이나 발현 목격증인들이나 은총을 입은 다른 사람들처럼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현존을 보았다면 금방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기적을 보고도 눈의 착각이라고 쉽게 단정하려는 우리들을 잘 아시기에 성서의 말씀으로 부탁드린 바위틈과 벼랑에 숨기신 주님 자신을 땅을 흔들어 나타내 보이시고 우렁찬 소리로 응답하심으로써 "하늘은 나의 옥좌요, 땅은 당신의 발판" 임을 나타내 보여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걸어가심을 알려 주셨다.

다음 날 아침 남 그레고리오 형제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고 나니 주님께서 영원히 잊지 못할 현존 체험이 내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다. "내가 여기 있다. 네가 항상 원하기만 하면 성체로 네 안에 매일 찾아가며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네 안에서? 준수성범 제 3권 43장 1-4항에서 말씀하시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표와 모습으로 기쁘게 나를 드러내 주고" 또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세밀한 연구에서 보다 모든 것을 버리는데서 진보하였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나날들을 모두 마칠 때까지, 모든 게으름과 어두움을 이기고 성덕을 쌓으며 살아 계신 나의 주님을 매일 모시려 노력하며 그 분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려 한다. 오늘도 2000년 전의 희생을 재현하시며 감실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나의 사랑 예수님을 자주 찾아뵙고 그 분의 작은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련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 있던 곳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성모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 감사 찬미 영광 받으소서. 아멘! M

##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찬미 예수님

바늘구멍만큼의 가능성도 없는 나의 상황에서 성모님께서는 17년 만에 아내와 함께 성모님의 발현지인 메주고리로 초대해주셨다. 막상 메주고리에 도착하니 조그마한 마을이 한 눈에 들어 왔고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일주일씩이나 무엇을 하고 지내나 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었다. 첫날 저녁 성 야고보 성당에서 드린 저녁 미사 때에 청원기도에만 익숙했던 나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모님께 봉헌 드리며 성모님께서 안겨주시는 아기 예수님과 그분의 평화를 간구하였다. 특별히 이번 순례기간 동안 내 안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청하고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지향하며 온 정성으로 기도 드렸다. 매일 아침 드리는 한국어 첫 미사 때에 영성체를 모신 후 "예수님, 성모님 그동안 걱정해 짓눌려 살아 왔던 저의 모든 생활과 제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순간 "아무 걱정 하지 마라. 내가 다 맡아 내 아들 예수님께 말씀 드려 주겠다." 하시는 듯 온 몸이 성모님의 포근한 품에 감싸이는 듯 하여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다. 성체로 내게 오시는 예수님의 현존하심과 성모님께서 곁에 계신 사랑을 흠뻑 깨닫는 시간이었다.

매일 저녁의 미사 전에 로사리오 기도가 시작 될 때는 세계 각국의 언어로 성모님께 드리는 한 목소리의 꽃다발이 되어 오롯이 천상으로 들어 올려짐을 느꼈다. 성체가 현시되는 성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불꽃으로 우리 영혼들을 태워주시고 모두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느꼈다. 특별히 나에게는 성광의 예수님께서 제 가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시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시는 강한 느낌에 내 마음은 주체 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로 넘쳤다. 순례 일정 중에 만나는 메주고리에 마을의 사람들은 늘 기쁘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묵주기도

익명의 순례자

를 드리며 걷고 있었다. 또한 우리 순례 그룹은 마약, 중독, AIDS 등을 약도 안 쓰고 오직 기도와 노동으로 치유하는 공동체인 체나콜로와 성모님 발현 동산에서 두 번이나 발현 장소에 초대 받아 성모님의 발현을 보는 목격증인들과 함께 하며 그 분들이 성모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한 자리에서 보게 되는 큰 은총의 초대도 받았다. 개인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는 회개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묵주기도를 하며 미사, 영성체, 성서일기, 단식, 매달 고백성사를 부탁하시는 성모님의 간절한 말씀도 마음 깊이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렸다.

14처의 십자가산을 오를 때 맨발로 오르는 많은 이들을 보고 나도 용기를 내어 맨발로 산을 오르며 예수님의 수난 고통을, 또 그 고통에 말없이 함께 하시는 성모님의 고통을 생각했다. 한 발자국씩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동안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었던 나의 가족들과 이웃들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분노, 게으름 등 나의 악습을 벗겨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피로 씻겨 주심을 믿으며 올랐다. 때마침 은총의 비까지 내려 주시어 더더욱 감사했다. 요조신부님과 함께 한 치유예절 때에는 우리들의 삶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해주시며 성모님의 상봉을 가슴에 안고 그 분을 나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기도드리라고 하셨을 때 성체 현시 때와 같이 성모님께서 내 가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심을 느끼고 이 모든 은총에 그저 감사드렸다. 예수님과 성모님만이 주시는 평화의 은총과 기쁨, 특별히 가만히 있어도 쏟아 주시는





## 아들의 차가운 가슴에 나를 묻으며 ...

은총이 느껴지는  
메주고리에의 거  
룩한 사랑의  
공기는 일주  
일이 길 것  
같다고 느꼈던

처음 도착 때의 철없었던

생각들은 어디로 가고 오히려 그  
곳을 떠나는 날은 아쉬움에 떨어  
지지 않는 어려운 발걸음을 옮겨  
야 했다. 돌아오는 순례 여정 중  
아름다운 드브로브니의 아드리안  
해안가의 절경과 색상, 크고 작은  
섬들의 아름다운 자태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랑까지 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미드릴뿐 나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  
번 메주고리에 순례를 마치고 정  
리 하던 중 왜, 이렇게 힘든 처지  
에서 성모님께서 나를 초대 하셨  
을까? 되돌아보니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모든 걱정을 나에게  
맡기고 변화된 삶을 살아다오. 너  
의 마음속에 새로 태어나게 하신  
아기 예수님과 함께 네 이웃에게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다오"  
하시는 성모님께서 내 곁에 앉아  
계시는 듯 행복하다.

예수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성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M

자는 것처럼 조용히 눈을 감고 평온하게 누워 있  
는 아들의 가슴에 나의 얼굴을 묻는 순간 차갑다  
못해 시린 내 아들 가슴의 체온이 내 손과 팔을  
타고 심장까지 저리도록 전해 왔습니다. 그토록 따  
뜻했던 내 아들의 가슴이 이렇게 쉽게 식을 수  
있다니 반듯한 하얀 이마, 탐스런 머릿결, 백만  
불짜리라고 놀렸던 잘 생긴 코며 숨을 모으고 있는 듯

한 입술이 분명 내 자식이건만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가 왔는데 모른 척 그  
냥 누워만 있다니...

살아오는 동안 가장 많이 놀라고 흔들렸던 순간 이었지만 울음조차 토할  
수 없었던 경악과 비통으로 찢어지던 아픔의 시간들을 이제는 모두 사랑하  
는 주님께 바칩니다.

금지를 갖던 검은 정복을 본향 가는 예복으로 멋지게 차려 입고서 팔소  
매에 처져있는 한 줄 테두리로 애처로운 이승의 젊음을 표시하며 꼭 끼는  
공간에 누워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청하는 아, 다시는 못 볼 내 아들.

두툼해서 잘살거라던, 이미 제 색을 잃은 정다웠던 두 손에 밤새 눈물로  
엮은 목주를 들려 보내며 "아들아, 잘 가거라." 억지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 아까운 너무나 아까운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하느님, 정말 너무하십니  
다. 제가 무얼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주십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 가세  
요. 당신 뜻에 동의할 수 없어 울부짖던 원망과 절망의 시간들을 이제 모두  
사랑하는 주님께 바칩니다.

낙오되는 동기들을 전우애로 격려하며 앞 장 섰다는 내 아들이 제 발로  
건지 못하고 태극기에 덮인 채 동기들 손에 들려 나왔습니다. 버티던 다리  
힘이 풀리고 아들 따라 가고만 싶었습니다. 보고 싶을 땐 우리 가끔 하늘을  
보자는 친구들의 조사도, 눈물로 미사 드리시는 군중 신부님의 모습도 내가  
꼭 남의 장례미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아  
주 작아져버린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수습하며 스물다섯의 청춘과 꿈이 백자  
에 갇히는 것을 보며 아, 정말 한바탕 꿈이었음 싶어 눈을 꼭 감고 뜨고 싶  
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제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인하고,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정녕 인정할 수 없었던 불신과 반항의 시간들 이제 모두 사랑  
하는 주님께 바칩니다. 내 것이라 믿고 가장 사랑하고 어쩌면 당신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나의 우상을 하루아침에 무참히 걷어 내어 어리석은 이 가슴

한 복판에 십자가로 박아주시며 감히 당신의 뒤를 따르라 하시니 속 좁고 웅졸한 이 몸 하루에도 열두 번 당신을 원망했나이다.

빠 마디마다 녹아나고 애 간장이 다 타버려 솟 검둥이 다된 몸쓸 이 몸 하루에도 골백번 당신을 배반했나이다. 이처럼 지조 없고 약해 빠진 미천한 저를 쉬 임 없는 당신의 호홉으로 새 생명을 넣어 주시며 자애로운 사랑으로 곁을 내어 주신 당신 앞에 욕망의 허물을 벗고 당신 앞에 섰나이다. 견디어 낼 줄 알았다며 기진하여 지친 저를 넓은 당신 품에 안아주시어 편히 쉬게 하시며 가리어 내신 은총으로 희망의 삶을 마련해주시는 한없는 당신 사랑에 하루에도 열두 번 당신께 감사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시며 으스스한 마음을 더함으로 모아주시는 사랑이신 내 아버지 욕심과 집착을 끊어주시며 고통의 굴레에서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시니 하루에도 골백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 삶의 곳곳에서 저를 키워주시고 각진 곳 다듬고 찢어진 것 기우시어 당신 앞에 당당히 세워주시니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사 오리오. 제 삶의 십자가를 무사히 통과하게 해주시어 어둠던 눈비로서 앞이 보이니 정녕 당신이 바라신 것 이것 이군요. 이제 내게 남은 소망이 있다면 당신 뜻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제가 살아가는 동안 오로지 당신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M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호스피스 봉사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계신 분의 글입니다.



### ▶ 예수님께 영광과 찬미를...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기도회"를 위하여 봉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의 많은 열매들을 예수님께 봉헌하며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 ▶ 평화의 모후 기도회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경남 지도 신부님(종교 교육학 박사)이 평화의 모후 기도회 책자를 발행하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선교회로 연락을 주십시오.

### ▶ 좋은 선교 도구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는 사랑과 기도가 담겨있는 좋은 선교 도구입니다. 냉담 중에 있는 이웃들과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전해주세요. 필요하신 분은 선교회로 연락 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미 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한 국 : 옥수동 성당 (02-2297-2038)

허안젤라 (017-785-3535)

캐나다 : 이준용 콜배 (403-288-0469)

### ▶ 성모님의 매달 메시지와 순례안내

미주가톨릭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매달 미사 책에는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매달 메시지와 선교회에서 주관하는 순례안내가 실려 있습니다.

### ▶ 회원님들께 ...

주소가 변경되어 돌아오는 소식지로 선교회의 경비와 인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식지의 정확한 전달을 위하여 이사하신 회원님들의 주소를 정리하고 있으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965-6168. Fax : (610) 965-6179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발 행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 행 인 : 남홍익 그레고리오

지 도 신 부 :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자문위원단 :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윤종식 신부, 웨인 와이볼,

남기옥 마르타(선교학 박사)

편 집 위 원 : 오영숙, 양의현, 송시원, 남미자, 이해인

인 책 : 미주가톨릭출판사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

김문자 안젤라. 김젼마. 이은경. 최경미. 홍현미. 오선영. 표로사리오. 이에밀리아.  
박화영. 김멜라니아. 한울리안나. 문경자. 이준용. 한글라라. 지모니카. 윤요셉.  
송나티리아. 최율리안나. 임데레사. 이세실리아. 정옥순. 정도루시아. 김미선.  
전영란. 강영숙. 금라우라. 김경자. 제2구역 반원일동. 이종무. 윤효숙.  
안데레사. 양데레사. 정순옥. 정마리아. 김시순. 오애희. 김정자. 전연희.  
박승화. 방정희. 조모니카. 김루시아. 김경순. 마정희. 한세셀리아.  
박프란치스카. 유병필. 이프란치스코. 안진숙. 이수동. 박수원. 정일순.  
유제영. 이경애. 오순영. 김정미. 강재복. 임지연. 이경성. 전종례. 지살로메.  
한미숙. 강진희. 장연자. 송란규. Myongsu Moran. Smith Sukyon. Miss, Sung.  
Driggle Sun, 이재선. 김정자. 김율리아나. 루시아. 바오로. 노마리아. 박아네스.  
김제롬. 표춘옥. 권스티브. 전문자. 유애영. 배골롬바. 배경순. 윤혜숙. 이경희.  
김부영. 손마리아. 심재석. 김영선. 잔슨윤숙. 최루시아. 정지나. 오수산나. 김길자.  
엄봉화. 김정자. 박현영. 손점춘. 박태찬. 유철민. 황정애. 한진수. 김상현. 주지혜. 임영미. 홍진순. 오필웅.  
정지나. 선영데레사. 박세찬. 김말가리다. 이미카엘라. 윤옥련. 장정자. 이혜숙. 최승만. 이금숙. 임성수. 이정은.  
최길수. 최기석. 오세완 신부님. (28차 순례때 봉헌된 미사헌금 전액을 소식지 발행을 위해 주셨습니다.)

**한국후원** : 권레지나. 최연비. 이크리스티나. 임엠마누엘. 권글라시아. 양미카엘라. 김문자. 김젼마.  
강아가다. (한국에서의 보급을 위하여 발행비에 사용하였습니다.)

### 보내주신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메주고리에 소식지 제23호는 처음 8천부를 인쇄하였으나  
1000부를 더 추가하여 미국, 캐나다, 메주고리에 9000부, 한  
국 3000부, 총 12,000부, 제24호는미국에서 7000부, 한국에서  
4,000부를 발행하여 총 11,000부를 무료 보급하였습니다.

• 후원금 합계	\$ 7,485.00
지출 (23호 및 24호 소식지)	
인쇄, 발송, 원고료	\$ 7,200.00
통신비	\$ 637.00
교통비	\$ 549.25
기타 비용	\$ 834.00
• 지출 합계	\$ 9,220.00
• 부족금	\$ 1,735.00

### 데레사 수녀의 3실링

데레사 수녀가 인도 칼카타에 큰 보육원을 짓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보육원 건축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데레사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준비된 기금은  
3실링뿐입니다.” 그러면서 데레사 수녀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 세립을 책상 위에 꺼내놓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기자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 수녀의 표정과 말은 진지했습니다. “이 3실링과 나로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3실링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는 3실링이나 3만파운드나 같은 것입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은 하느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데레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데레사 수녀의 3실링은 믿음을 모으는 씨앗이 되었  
고 보육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믿음은 내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것이 아  
니고 하느님께서 잠시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그 분이십니다.

## Monthly Reflection on the Message



//

**Dear Children! This is a time of grace, for the family, and therefore, I call you to renew prayer. May Jesus be in the heart of your family. In prayer, learn to love everything that is holy. Imitate the lives of the Saints so that they may be an incentive and teachers on the way to holiness. May every family become a witness of love in this world without prayer and peace. Thank you for having responded to my call.**

(October 25, 2004)

//



**I**n this message, our Heavenly Mother is addressing the families. Nobody else has such an experience and such virtues of the family life. Mary was a girl, promised in marriage and married to Joseph, virgin and mother, Mother of the Son of God and widow after the death of Joseph. She knew and experienced all the joys and all the sorrows of family life, exaltations and anguishes, fears and death, until the most painful tragedy of her crucified Son. She experienced the glory of Easter with her risen Son and finally the heavenly crown. She began as a humble servant and she finished as Queen of Heaven.

For her, this celestial glory is not a title of honor: she is coming, she is appearing, she is taking care of us, her children, who are still on the way towards the final goal and the glorification. She is speaking to us, she is inviting us, she is advising us and teaching us. The words of Mary are clear and simple and they relate to our everyday life, our relations in the family, where human life is generated and educated. Mary, our Mother, is concerned about families, parents and children. No one is closer to their children than the parents. Their love of the children urges them to accomplish their first and most important duty: the education of the children. This duty takes precedence over all the professional and official occupations, over any career and social advancement. Mary is our model of education and of the family life. In her heart, she is carrying the treasure, which she wants to transmit to us. The Gospel says to us: "But Mary kept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Lk 2,19) The same Gospel repeats that she "kept all these sayings in her heart." (Lk 2,51) In Mary, we find the splendid treasure of the wisdom of God which wants to be given to us and to our families. Seen from outside, the human education that Mary gave was so ordinary that nobody in Nazareth could expect that her Son was the Messiah, that he was God. From outside, Mary was as ordinary as her messages, which contain the divine life that is offered to us. Seen from inside, the education that Mary gave was extraordinary in what is ordinary, perfect in every way and behavior,

# Does Purgatory Exist?

because she was aware of the fact that she was humanly educating the Most Holy One. For such an education, it was necessary to have a perfect heart and a harmonious soul, which did not lack to the Immaculate full of grace.

Mary calls us to holiness. Holiness is what is extraordinary in the ordinary human life. It is well known that it is not so much the specialized teaching and knowledge, but the exemplary behavior of the parents that educate the children. We find specialists in pedagogy who failed to educate their own offspring, as well as illiterate mothers who offered a splendid education to their children. A mother educates more through her being and her goodness than through her specialized knowledge.

Mary invites us to renew the prayer; the prayer will renew our hearts and our families. Jesus is standing at the door and he wishes to enter and eat with us. The family, which prays, will be able to hear when he is knocking. Let us not allow to anything else but Jesus to be at the centre of our families. **M**

**Fr. Ljubo Kurtovic**  
**Medjugorje, November 2, 2004**



## What Does The Church Say About Purgatory?

**W**hat does the Church Say? We can see what the Catholic Catechism says about it in paragraphs 1030 and 1031:

"Those who die in the grace and love of God, but are not perfectly pure, even if they are certain of eternal salvation, undergo a period of purification after their deaths in order to obtain the holiness necessary to enter into the joys of Heaven. This final purification of the chosen is called Purgatory by the Church and is quite a different thing from the punishment of the damned. The doctrine relative to Purgatory was formulated mainly in the Councils of Florence and Trent. Church tradition based on certain passages in the bible, talks about a purifying fire (Mt. 12:31)."

This teaching rests on the practice of prayers for the dead as mentioned in Holy Scripture.

"Therefore (Judas Maccabei) made a sacrifice for the dead so they could be absolved of sin" (Maccabees. 12:46). Right from early times of the Church has honored the memory of the dead and has offered intercessions for them, especially the sacrifice of the Mass.

## "THE SOULS IN PURGATORY SAID TO ME..."

Over the centuries God has given His permission to certain honored souls, including St. Margaret Mary Alacoque, St. John Bosco, St. Gertrude and St. Christine of Belgium, to take a privileged look at the other world and to confirm the truth through this exceptional experience. One of these privileged people is Maria Simma, an Austrian mystic. It has been God's special gift to this humble peasant woman, who is more than 80 years old, to have been visited by souls from purgatory for more than 50 years.

## WHAT DO THESE SOULS SAY?

They give warnings and information, they ask for intermissions and they talk about their sufferings in purgatory attenuated by the joyful awaiting and certainly that they will sooner or later find themselves in the arms of God.

Above all they reveal to the living the immense possibilities they have to relieve the sufferings of the dead and to receive innumerable benefits in exchange.



## WHAT IS PURGATORY LIKE?

Maria Simma answered Sister Emmanuel's questions. She sees Purgatory in different ways: "there is a huge multitude of souls ? it's a continuous movement. Every soul is purifi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his sins and the degree of his attachment to the type of sin committed. Heathens suffer a lighter but longer punishment in Purgatory while Catholic souls suffer more since more is expected of those who receive more. However, they receive more intermissions and this accelerates their liberation.

Every soul has a nostalgic longing for God and this is the most excruciating of the pains. Not a single soul would like to return to the earth to live as it did before in the darkness of this world, because now it knows things about which we have not the faintest idea. The souls in Purgatory suffer with admirable patience and praise Divine Mercy, thanks to which they have escaped hell.

Sister Emmanuel asked, "Maria, what are the sins that most frequently send souls to Purgatory?"

"They are sins against charity, sins against love for one's neighbor, hardness of heart, hostility, calumny. I know that false witness and calumny are among the most serious of sins and require a long period of purification."

Sister Emmanuel: "Well then, who are those that have the best chance of going straight to Heaven?" "Those who have a good heart for everyone. Charity covers for a multitude of sins. St. Paul says so."

Sister Emmanuel: "Maria, could you say whether it is God who sends a souls to Purgatory or is it the souls itself that decides to get there?"

"It is the souls itself that wants to get to Purgatory to purify itself before going to Heaven. We must do a great deal for the souls in Purgatory for they help us in their turn. Great humility is required: it is the greatest weapon against the Evil One. Humility eliminates evil."

Sister Emmanuel: "Are there any differences of degree in Purgatory?" "Oh yes, a grea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moral suffering. Every soul has its own special suffering to bear. The suffering in Purgatory is worse than any suffering on earth, but in a symbolic way. It causes most pain to the soul."

## HOW CAN WE HELP THE SOULS IN PURGATORY?

"What are the most efficacious means to free the souls from Purgatory?"

"Mass is the best means because during Mass, Christ offers Himself out of love for our sins. It is an offering of Christ Himself unto God, the most beautiful of all offerings. The efficacy of the Mass for the dead is so much greater and varies according to

the esteem the dead themselves had for the Mass when they were alive. If they prayed with all their hearts during Mass and they also attended during the week, according to the time available to them, they will obtain great profit from the Masses said for them." **M**

- By Sister Emmanuel, Our Mother Queen of Peace Publication

## A New Start for Bush, An Alleged Message, and Power of Icons



**T**here is real power behind icons. They are earthly representations of what is in heaven, and they invite grace. Many are the icons that weep or exude oil, and those non-Catholic Christians, fundamentalists, and evangelicals who oppose them as "idolatry" need to recognize that when the Bible was admonishing about "graven" images and "idols," it was aiming at images that represented evil spirits --

the snakes and half-human, half-beast demon-gods in places like Egypt and Babylonia (not holy images).

In fact, those who argue that the Ten Commandments forbid the creation of any heavenly images should note that the Lord Himself instructed Moses to carve representations of angels in the Ark of the Covenant!



There is nothing wrong with pictures, engravings, and statues as long as they are not worshipped and are not symbolizing demons. Many

meanings have occurred in the presence of holy images, and that's a good "fruit"; by their fruits you will know them.

Now comes the presence of what for all appearances is a framed icon of the Blessed Mother and Child on an end table in President Bush's living quarters -- seen on national television election night. This is a surprise because Bush himself is evangelical and counts fundamentalists among his most ardent supporters. It looks like a version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or Our Lady of Kazan -- a replica of which also had been in the Pope's living quarters.

The Blessed Mother gets around! Bush is not the only president who has been associated with one. It has been reported that after his retirement, President Ronald Reagan, who likewise shared a close connection with evangelicals, had a statue of the Blessed mother in his office and referred to her as "my gal."

From SpiritDaily.com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뉴욕교구 가톨릭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를 발행하며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회개하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 회원님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발행
2. 신앙 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에 순례 안내
3.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5. 한. 영문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6. 메주고리에 관련 책 번역 및 출판 보급
7.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관련인사 및 메주고리에 목격증인 초청 강연회 개최

성모님께서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들을 성모님의 평화의 사도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매주고리에" 소식지의 의 꾸준한 발행을 통하여 성모님의 메시지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전파하는 선교 사명에 쓰여지고 있으며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는 성모님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후원 회원님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 를 보내드립니다.
2. 메주고리에 순례 때와 매월 성모 신심 첫 토요일에 회원들의 기도 지향과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해 드리고 있습니다.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와 모든 기도 지향”을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에게 전해 주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5.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회원 가입서

의예      부      작      글

성명 : 영문 : 영세명 :

주소 :

전화(H) :                      전화(O) :                      Fax :

E-mail : 소속본당 :

해당란에 ✓표 하여 주십시오. 월( ) 년( ) 기타( ) 금액 \$                      기존회원 ( ) 새회원 ( )

보내실곳 ▶ 미국 : 남그레고리오 (610-965-6168) ◦

**Queen of Peace Missionary**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 한국 : 허혜경 안젤라 (017-785-3535)

옥수동 성당 :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1-12 전화 : 02-2297-2038

외환은행 : 081-18-371119-5 예금주 : nam gregory

USA

남 그레고리오

309 Parkside Drive, Macungie, PA 18062  
Tel. 610-965-6168 / Fax. 610-965-6179  
E-mail : gregorynam@hotmail.com

CANADA

이준용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KOREA

옥수동 성당

서울시 성동구 옥수 1동 511-12  
Tel. 02-2297-2038 / 허 안젤라 HP. 017-785-3535  
E-mail : hbk2123@hanmail.net

## 평화의 모후 선교회 *Queen of Peace Missionary*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들을  
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 달라고 초대한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온 세상에  
전해 주기 바란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가 되어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라  
그러면 모든 이들의 마음은  
빛과 구원의 길을 받아들일 것이다.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 주어 고맙구나...

